傘下支部動靜

협회본부

▲제10대 회장 이취임식거행 : 협회 중앙본부에서는 지난 4월1일 오전 회장단이하 집행부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송경태회장 이임 및 이종용회장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전임 송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6년 동안 자신을 도와 회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한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본회가 제2의 도약을 할수 있도록 신임 회장을 잘 받들어 더욱 발전된 협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씀하였다.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전직원이 인화단결로서 화합하고 각자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생산자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신임 이회장은 전임 회장에게 행운의 열쇄를 증정함으로서 분위기는 가일층 고조되었다.

▲신임 회장단 농림수산부 방문 : 지난 4월7일 신임 회장단 일행은 초도 인사차 농림수산부를 방문하고 농산국장이하 잠업특작과장 및 사무관등 관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협회 발전을 위하여 주무부처로서 최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신임 회장단 회의소집 : 지난 4월7일 신임 회장단은 농림수산부 방문후 협회 사무실에 돌아와서 첫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신임이사 선임및 생약가격 안정기금 심의위원 선임방법 등을 토의하였다.

또한 94년도 계약재배 평수및 하한가설정과 수급조절 위원회 의결 검토후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보사부 규격화 고시』에 따른 본 협회의 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경기도 포천군 농촌지도소 약용작물 재배기술교육 : 지난 4월9일 경기도 포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생약재배농민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약에 대한 재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사로는 강원도 농촌진흥원 서정식연구관이 『황기』 『당귀』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이자리에서 포천군 농촌지도소장은 UR협상에 따른 대응책으로 국제개방화 흐름에 적응하여 국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부가성있는 품질 생산이라고 역설하였으며 약용작물 분야에 토질 배양검사등을 위하여 특정 실험실을 만들수 있도록 1만평의 대지를 확보해 두었다고 말하고 버섯 분야의 수출단지화를 조성하겠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본 협회에서는 전근택 총무부장이 참석하여 『보사부 규격화 고시』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농민들의 의견등을 생산자 단체의 입장에서 경청하였다.

▲『보사부 규격화 고시』에 따른 대응책 협의 : 지난 4월15일 회장단 일행은 농림수산부 잠업특작과를 방문하고 잠업특작과장, 사무관, 실무자와 최근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약재 규격화 고시』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4시간등안 협의를 하였다.

◇회장 이, 취임식 광경.

산하지부

▲경상북도 94년 지부 정기총회 : 지난 3월3일 경북지부는 경산에서 정기 支部會議를 소집하고 94년 경북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배성한지부장은 그의 인사말에서 각사무소장, 공판장장들이 협심 단결하여 생약발전을 위한 좋은 안건등을 모색하고 94년도부터는 他도의 모범이 되도록 하자고 말하였다.

본부에서는 수석부회장, 총무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수석부회장은 격려사에서 신규소장들을 본회 동참에 대하여 환영하고 가공공장 설치안및 『보사부 규격화고시』에 따른 의견등을 말씀하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지시하고 경북지부장이 마련한 『약초시범포설치』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서 박건수총무가 신규회원 영일군소장(염길생), 포항시소장(정기용), 의성군공판장장(이규경)의 소개를 하였다.

▲부산직할시 지부회의 : 권순직支部長은 지난 3월10일 서면 『한림정』에서 부산시 지부회의를 소집하고 94년 제1차 理事會議 주요안건등을 전달하였다.

협회중앙본부 수석부회장은 人事말에서 『보사부 규격화 고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어려운 시점에서 UR타결에 대처할수 있도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씀하였다.

이날 강원도지부 임원선출에 있어 현 박영임 支部長및 이종렬총무가 유임됨으로서 앞으로 3년동안 지부운영을 다시 맡게 되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신임이사 선임및 생약가격 안정기금 심의위원 선임방법 등을 토의하였다.

또한 94년도 계약재배 평수및 하한가설정과 수급조절 위원회 의결 검토후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보사부 규격화 고시』에 따른 본 협회의 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경기도 포천군 농촌지도소 약용작물 재배기술교육 : 지난 4월9일 경기도 포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생약재배농민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약에 대한 재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사로는 강원도 농촌진흥원 서정식연구관이 『황기』 『당귀』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이자리에서 포천군 농촌지도소장은 UR협상에 따른 대응책으로 국제개방화 흐름에 적응하여 국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부가성있는 품질 생산이라고 역설하였으며 약용작물 분야에 토질 배양검사등을 위하여 특정 실험실을 만들수 있도록 1만평의 대지를 확보해 두었다고 말하고 버섯 분야의 수출단지화를 조성하겠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본 협회에서는 전근택 총무부장이 참석하여 『보사부 규격화 고시』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농민들의 의견등을 생산자 단체의 입장에서 경청하였다.

▲『보사부 규격화 고시』에 따른 대응책 협의 : 지난 4월15일 회장단 일행은 농림수산부 잠업특작과를 방문하고 잠업특작과장, 사무관, 실무자와 최근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약재 규격화 고시』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4시간등안 협의를 하였다.

이종용회장은 국내산 생약은 농산물로써 인정해 줄것과 생산자가 직접 가공하여, 산하에 공판장 등을 통한 판매의 길을 열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에서는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보사부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생산자의 입장을 건의하겠다고 말하였다.

포장등 규격화 사업은 협회에서 실시하여 농산물로 유통시킴으로서 생산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강원도 지부회의 : 박영임支部長은 서울 반도아카데미에서 강원도지부회의를 소집하고 생약재 유통현황및 시세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

본부 수석부회장은 『보사부 규격화 고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어려운 시점에서 UR타결에 대처할수 있도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씀하였다.

이날 강원도지부 임원선출에 있어 현 박영임 支部長및 이종렬총무가 유임됨으로서 앞으로 3년동안 지부운영을 다시 맡게 되었다.

한약재규격화고시에 따른 한국생약협회의 입장

금번 보사부 고시제 1994-11호에 의거한 규격품 대상 한약재 지정고시(안)에 대하여 생산자 회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본협회의 입장을 천명하고저 한다.

一、보사부가 고시한 『규격품 대상한약재 지정고시안』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생산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입장을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

一、U.R타결이후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약 재배는 전국적으로 주산단지 조성을 하여 지역마다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一、생약의 재배가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생산자가 세척, 건조, 절단, 포장(단순가공)은 생약재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산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一、보사부(안)대로 한다면 생산하여 절단 가공업소에 판매해야 하는데 부가가치가 떨어져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一、생것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운송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다.

一、가공공장을 생산자가 직접 만들 경우는 시골에서 약사를 고용하기가 어렵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영세한 생산자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一、가공공장을 만들어도 실제 생산시기부터 2~3개월밖에 가동할수가 없고, 따라서 공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

一、국내산 생약은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많아 농산물로 규격 포장하여 유통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굳이 『원료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가진 업체에서만이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一、미국에서는 한약재를 건강식품정도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국내 생산생약은 농산물로써 취급되고 있다.

一、국내에서 생산자 농민이 재배하여 단순가공되는 생약이 의약품으로 취급된다면 생약 생산자들은 생산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협회의 의견은, 국내산 생약은 농산물로써 인정해 줄것과 생산자가 직접 가공하여 산하에 공판장 등을 통한 판매의 길을 열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